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는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제2, 제3의 북한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와 도로환경포럼이 11월 19일 동국대 다학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민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에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측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환경영향평가 입안과정부터 이뤄져야

도로정책 문제점 · 개선방향 토론회 요약

● 많은 도로는 폭력이다?

도로는 오로지 직선이며, 직선은 효율적인 것이며, 효율성은 미덕인 반면에 곡선은 게으른 것이며, 자동차는 절대적 우선권을 지닌다는 논리가 어느새 우리들에게 내재화 됐다. 이런 직선의 논리 때문에 그나마 일부 남아있는 국립공원의 심장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논리가 비등해지는 것이다. 자본의 효율성은 속도의 배를 요구한다. 북한산 관통도로도 결국 자본의 효율성에 기대고 있다. 성(聖)의 공간인 사찰에 까지 뻗어나가는 자본주의 야수성은 인간 사회에서 성숙의 절대적 경계선조차 없애 버렸다. '영성(靈性)의 문화'를 '물성(物性)의 문화'가 지배한 것이다.

속도는 타인과 환경에 대한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다. 그러나 '고속'을 함유하는 대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인도의 경제학자 나란디 싱은 자동차를 '정의와 평등의 죽은 위에서만 번창하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주강현 한국민속연구소장은 "우리의 도로는 너무 많다. 지나침은 문화가 아니라 폭력이다. 문화의 시대, 문화를 선택할 것인가, 폭력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 도로에 대한 잘못된 믿음 3가지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시간을 단축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다. 인류 역사상 어떤 교통수단을 개발해도 시간을 단축한 예는

없다. 오히려 길어졌다. 걸어 다닐 때는 도로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해 살았고, 마차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동차를 타고부터는 오히려 한 시간 출퇴근 거리를 마다하지 않게 됐다.

도로를 개설해 교통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믿음이다. 처음 당장에는 빠른 것 같아도 차들은 길이 막힐 때까지 돌러오게 되어 있어 속도는 금방 떨어진다.

도로건설정보 국민에 모두 공개해야

평가기준 위반 땀 발주·시공사 등 처벌

감리와 별도로 설계·시공 모니터링을

어진다. 지금 도심에서 자동차 속도는 자전거보다 오히려 더 느리다.

있던 도로를 없애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생각도 잘못된 믿음이다. 성수대교 붕괴나 청계고가도로 철거에서 보듯 도로를 만들면 만드는 대로 도로가 막힐 때까지 차를 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차를 몰지 않게 돼 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국토, 인구, 경제규모와 신약이 많은 지역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고속 도로를 많이 건설한 나라"라고 지적한다.

● 무엇이 문제인가?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등 환경적인 고려와 저감대책의 수립이 부실한 게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산 관통도로다.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획과정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노선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승인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환경 훼손 저감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과 하위로 얼룩진 배경에는 평가 협의기준을

제정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도로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련 기관들의 환경에 대한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는다.

● 어떻게 해야 하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건교부와 도로공사가 관계하는 도로 사업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해 도로에 관련된 일체의 행정과 집행을 국민들이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건교부를 비롯한 산하 연구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발주자, 평가자, 시공사 등에 대해 반드시 처벌과 문책을 뒤따라야 한다. 또 도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설계와 시공에서도 기존의 감리와는 다른 차원의 환경검토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틀과 제도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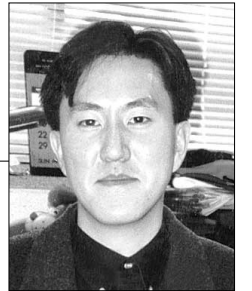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들고 오염이 적도록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도로, 자전거, 발자전거, 에너지 절약 소형 자동차를 위주로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지역사회에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수재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공사 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공사 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성훈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
전임지도자



불교,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문화포교로 자리매김 투철한 사명감과 프로의식 가져야

얼마 전 사석에서 모 불자 연예인이 본인의 평생 화두는 '불교, 축구, 해병대'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농으로만 들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참으로 명쾌한 신념이란 생각이 들어 새삼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주 평범한 학생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이며 불자였던 내가 불교레크리에이션 강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는 예상치 못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 신앙으로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었지만 신심은 그리 신심이 깊지 못했던 나에게 대학 시절 마주친 커다란 시련의 고통이 나를 부처님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은 아이러니를 뛰어넘어 전후회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작된 신행 생활은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어린이법회교사, 청소년법회교사, 청년회장, 군중병 등의 봉사활동 내지는 종교활동의 차원을 넘어 교계방송 진행자,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 지도자, 대학강사로 이어지며 현재까지 생업으로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포교가 단순히 자원봉사자의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프로의식을 가진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주며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와 힘을 준 단어가 바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이다. 레크리에이션이란 분야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60년으로 약 40여 년 간의 역사가 있었으나 그동안 거의 단종되고 전유물이 되다시피 해온 이 분야가 미래 포교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

로 자리 매김 할 것을 확신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1985년에 창립하여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전하기 위하여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그동안 수 천명의 법회지도자와 200여명의 전문지도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어느 불자가 묻는다 '불교와 레크리에이션이 무슨 관계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신(身), 구(口), 의(意)로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남을 기쁘고 즐겁게 또한 편안하게 해주어 서로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불교레크리에이션의 참모습이라고 말해본다. 그리고 서양에서 온 레크리에이션이란 말의 뜻도 '상구보리 화합중생'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담겨 있으니 불교공부 열심히 하시면 알게 되신다고!' 나만의 괴변일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정보화, 기계화, 개인화로 대변되는 21세기기를 살아가며 이제 우리나라에도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여가대중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립 법회를 맡으며 인간적 만남과 편안함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하는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포교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제 불교계에서도 포교원과 중앙신도회 교육팀을 시작으로 불교레크리에이션이 단숨에 여흥이나 놀이가 아닌 하나의 학문과 문화포교의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는 교계 대학에도 관련학과의 개설이 논의되는 등 불교레크리에이션을 이성의 속제로 안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행복 한 미소를 지어 본다.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립재오가피 제1차 성광수

-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 스포츠 투데이 2003 컷브랜드 대상 선정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름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시에 국내최대오가피판매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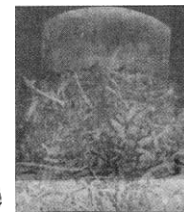
※주의 : 저의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져서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판매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47-9114

당뇨·혈압 뽕잎으로 잡는다

혈당·혈압 낮춰 "선약 중의 선약" 전통재래식추출법 개선특허 받아



옛 어른들이 선약 중의 선약이라고 극찬한 뽕잎을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3대째 가업으로, 원액을 추출하는 전통재래식 추출방법을 보완·개선한 과학적인 방법(특허 제0346747호)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발명자 이해승 사장에 따르면 조부와 부친이 만들어 준 뽕잎원액을 먹고 당뇨와 고혈압에서 해방되어 가는 사람을 보고 가업으로 이어가겠다는 사명감으로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늘에서 말린 뽕잎을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은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이나 중국의 본초강목에는 수신군데에서 내용을 다룰 만큼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의보감에는 뽕잎을 마시면 당뇨증상이 억제되고 고혈압 증종 외에 자양 강장 효과도 있는 등 각종 약초 가운데서도 불로장생의 묘약이라 쓰인다.

뽕잎의 대표적인 성분인 DN는 혈당강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으로 오직 뽕잎에만 다량 존재하고 있고 다른 식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도 말린 뽕잎무게의 0.1%로 함유량도 매우 높다. 또한 뽕잎은 직접적으로는 전분의 분해를 늦추어 혈당을 조절하고 간접적으로는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나오도록 촉진한다.

뽕잎은 혈관벽에 붙어 있는 고지혈을 없애주며,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등을 없애주며, 혈압을 낮춰주며 강한 이뇨효과로 혈압을 떨어뜨린다.

농촌진흥청 생체활성화물질 연구팀에 의하면 뽕잎진액은 당뇨병 치료제인 아카보즈 성분보다 혈당 강하효과가 21%, 냉동누에구름보다 22%나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채소라 불리는 만큼 그 가치가 농업과학 기술원, 경희대 등 여러 곳에서 과학적으로 속속 입증되고 있는 이 뽕잎은 독성이 전혀 없고, 누에를 쳐야 하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매우 안전하며 많이 먹어도 전혀 부작용이 없어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02)3446-5102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뽕잎의 성분

- 디옥시노지리미신(DN), 혈당강화성분 (동양에만 다량함유)
- 페로인: 혈당을 떨어뜨리는 침을 분비, 인슐린 분비 촉진
- 칼라스테인: 혈당강화 성분
- 루틴: 뇌 모세혈관 강화, 뇌출혈예방(고혈압에 좋다는 매일 20배)
- 가비(GABA): 혈압강화 성분(매일의 48배, 녹차의 40배)
- 모라세린: 혈압강화 작용
- 단백질: 식물 중 최고
- 그외 칼슘, 철분, 아연, 식이섬유 등 100여종 이상의 인체에 유익한 성분